

폭염 중대본, 강화된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

- 8.9.(일) 김광용 중대본 차장 주재 ‘폭염 재난 대응 중대본 회의’ 개최
- 사고수습지원본부 활동·건의사항 점검,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하 ‘중대본’)는 8월 9일(일) 오전 11시 김광용 중대본 차장 주재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폭염 재난 대응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농식품부·복지부·노동부)에 설치된 사고수습지원 본부의 분야별 대책 추진 상황과 대국민 홍보실적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대책상황실을 차관이 총괄하는 사고수습지원본부로 격상하고, 8월 7일부터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여 한층 강화된 폭염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대본은 온열질환 예방요원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정부·산림청·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드론·차량을 활용한 예찰과 마을방송을 통한 농작업 자제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중대본은 폭염특보 발효지역의 고위험군 어르신 안부 확인과 연장 운영 경로당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8월 14일까지 건설현장·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중대본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특보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사업장 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도 폭염 장기화에 맞춰 피해 저감 대책을 논의하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저소득층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한편, 미신청 또는 미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우체국 집배원이나 사회복지사 등 조사원을 통해 방문·안내하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25년 4.7만 세대→‘26년 12.3만 세대)

또한, 혹서기에는 전기요금을 체납한 저소득층도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류제한 조치를 유예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액화산소공급기 등 대응장비 지원을 당초 계획보다 18억 원 많은 94억 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피해 우려지역의 양식어류 등의 피해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어, 중대본은 주요 언론보도와 현장의 건의사항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하였다.

프로야구 경기 중 다수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사례 및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고교야구 경기가 열린 사례와 관련하여 문체부 등에 야외 체육행사의 폭염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밀양에서 열린 물놀이 페스티벌 사례와 관련하여 행사에 사용된 물은 재활용 예정이라고 확인하였으나, 가뭄상황을 고려하여 행사 축소 및 물 이용 최소화를 당부했다.

한편, 중대본은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의 가뭄 대처 상황을 점검하였다. 가뭄 발생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용수 공급 대책, 군·소방·산림청 등 협업을 통한 급수차량 지원방안, 가뭄 대응 추가 예산 지원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김광용 중대본 차장은 “강화된 범정부 대응체계의 성패는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라며, “사고수습지원본부는 소관 분야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추진하고, 특히 고령농업인과 야외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진희 (044-205-6360)
		담당자	시설사무관	조호명 (044-205-6364)
		담당자	수석전문관	김부생 (044-205-6369)

폭염 6대 행동요령



본격적인 무더위
● 폭염특보 33℃

무더위 기상상황 확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야외활동시 신체노출 최소화

*실내온도 26~28 유지

시원한 장소 휴식

충분한 수분섭취

가족 또는 이웃의 안전 살피기